

소아기관지천식

녹용 첨가한 「소청룡탕」이 특효

요 즘같이 날씨가 변덕스럽고 건조한 계절은 기관지가 약한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 천식이 극성을 부린다.

특히 이맘때면 병원은 알레르기로 인한 기관지천식과 비염 환자로 발디딜 틈도 없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알레르기 기관지천식은 기관지나 기관지가 여러가지 기온의 변화와 찬 공기 피로 심리적 자극 불안등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기도협착뿐 아니라 호흡곤란, 기침, 천명, 가래끓는 소리등을 일으키는 병이다.

기관지천식은 특히 소아에게 많이 나타난다. 소아천식 환자는 전국에 수십만명이 될 정도이다. 소아천식은 대개 5~6세 정도에 증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간혹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더욱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천식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은 △찬공기나 먼지 진드기 곰팡

이 꽃가루 △자율신경의 실조 △감기등 감염증의 합병증 △각종 스트레스 △몸의 대사이상 △내분비계의 실조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감기등 감염증에 의한 감염형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피형 기관지천식,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앓았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심한 기관지천식을 일으키는 혼합형 천식등 3가지이다. 5~6세 이하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렸을때 쉽게 낫지 않고 『거름 거르름』하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잦은 기침을 한다면 기관지천식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염형 기관지천식이라고 한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므로 완전히 낫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기관지 천식 증상이 나타난다. 기관지천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감기는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감기가 악화되어 기관지천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토피형 알레르기 기관지천식은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때로는 호흡이 곤란해진다. 심하게 되면 얼굴색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지천식이 있는 어린이는 폐나 기관지등이 체질적으로 약해서 많이 오는데, 이렇게 약한 체질의 어린이는 녹용을 첨가한 소청룡탕이 특효가 있다. 환절기 이맘때면 어김없이 기침 호흡곤란 가래로 고생하던 어린이들이 수차례의 탕약복용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추운 겨울철에도 천식이나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잘 지내는 임상사례가 부지기수다.*